

황야에 대한 인식과 미적 경험의 변화

- 조경의 이중적 자연관과 그 모순 -

배정환

단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Conceptual Shift of Wilderness and Its Aesthetics - A Perspective on the Contradictory View of Nature in Landscape Architecture Tradition -

Pae, Jeong-Han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ual shift of *wilderness* and its legacy to the contradictory view of nature in landscape architecture tradition. In hunting and gathering societies, there was no dichotomy between the cultivated environment and wilderness. "Wilderness" is a word whose first usage marks the transition from a hunting-gathering economy to an agricultural society. We can identify two archetypal responses to wilderness: classical and romantic. In the classical perspective, wilderness is something to be feared—an area of waste and desolation. The conquest of wilderness and the creation of usable places is a mark of civilization. For the romantics, in contrast, untouched wilderness has the greatest significance; it has a purity that human contact tends to sully and degrade. Wilderness for the romantics is a place to revere, a place of deep spiritual significance, and an object of aesthetic experience. In the Western world, the classical position predominated until the last two hundred years when the romantic concept began to gain more ground. The shift was made possible by the change in the way nature is understood. Modernity and modern science objectified nature. The transition of the concept of wilderness exemplifies the objectification and pictorialization of nature. Wilderness in the modern era is not different from the pastoral landscape which can be controlled by landscape architects.

Key Words: Wilderness, Nature, Aesthetic Experience, Pastoral Ideal, Classicism, Romanticism

I. 서론

환경과 생태의 녹색 깃발을 높이 내건 최근의 조경 설계는 갖가지 개념을 동원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자연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반성적 질문에 명료한 답을 대입하기란 쉽지 않다. 조경가가 부르짖는 자연이라는 것은 결국 나무와 꽃과 잔디와 물이 적절히 혼합된, 보기 좋은 녹색 경치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우 모호한 수준에서 자연이 설계의 방패막이로 언급되고 말거나, 상업적 수단의 하나로 전략적으로 이용될 때도 드물지 않다. “자연과 ‘자연적’이라는 말은 조경가들이 자신의 설계를 정당화하기 위해……가장 흔히 쓰는 말이지만……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검토되는 경우가 드문……이념적 지뢰”(Spirm, 1997: 254)라는 앤 스피어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자연에 관한 인식과 경험의 방식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17, 18세기 서구 정신사의 소산이다. 공포와 경외 또는 혐오의 대상이었던 자연이 예술 작품에 못지않은 경험을 보장하는 미적 대상으로까지 급변하게 된다. 또한 자연은 비로소 조경의 대상이자 주제로 등장하게 된다. 물론 이는 자연이 변한 결과라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경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다.¹⁾ 필자가 이 논문을 통해 자연과 조경이 맺고 있는 복잡한 함수를 풀어보겠다는 거대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근대를 겪으며 크게 변모한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인 ‘황야’(wilderness)에 주목한다.

근대 이후의 조경 문화에 깔린 자연관은 지극히 이중적이다. 조경의 이념은 자연을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순결한 어떤 것이라고 신화화하며 문화의 반대 극단에 위치시켜온 반면, 조경의 이름으로 재창조된 자연은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아름답고 낭만적인 녹색의 전원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배정한, 2004: 32-37). 이 이중의 모순된 궤적 중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픽처레스크 미학의 우산 속에서 배양된 풍경화식 정원(landscape garden)과 그 유산을 관통하는 ‘전원 이상’(pastoral ideal)이라면(배정한, 1999), 전자 곧 조경이 최고의 지향점으로 존중해온 원생의 자연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초점인 ‘황야’이다. 조경의 이상적 자연 모델 중 하나인 황야 개념을 조회해 봄으로써 우리는 조경의 이중적 자연관과 그 이면을 진단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황야에 대한 인식과 미적 경험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는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한다. 우선, 황야의 어원과 고전주의적 은유를 고찰함으로써 황야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파악한다(Ⅱ장). 다음으로, 황야의 대표적 형태인 숲과 산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는데, 특히 근대를 전후로 한 낭만주의로의 개념적 이행에 초점을 둔다(Ⅲ장). 마지막으로, 낭만주의적 자연관이 절정에 달한 19세기 북미 대륙의 황야관을 조회함으로써 변화의 단면을 고찰한다(Ⅳ장).

II. 황야의 어원과 고전주의적 은유

“황야의 정신사적 영향은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깊다”(Shepard, 1967: 157)는 폴 셰퍼드의 통찰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을 황야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황야를 자연의 원형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황야를 마녀와 야수가 거주하는 공포의 세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림과 사진을 통해 이미 황야에 익숙해져 있고,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실제로 경험할 수도 있다. 황야에는 신비와 낭만이 역설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구 정신사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극히 최근의 일이다.……숲과 산과 강을 당혹스럽고 또 사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은 17세기와 18세기 초에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Crandell, 1993: 112-13).

황야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본래 구체적인 지시 대상을 가진 말이 아니다. 수렵과 채취를 통해 생존을 영위하던 사회에는 황야와 나머지 환경 사이의 구분이 없었다. 모든 땅은 경작되지 않은 상태였고, 모든 동물은 가축이 아닌 야생의 상태였다. 따라서 황야라는 용어를 약 1만 년 전의 농업혁명과 그 기원을 같이 하는 문화적 소산이라고 보는 존 레니 쇼트의 입장(Short, 1991: 5-6)을 무리 없이 지지할 수 있다. 경작과 비경작, 야

만과 정착, 가축과 야생 동물이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정착 농경과 함께였으며, 황야 개념의 발생 또한 농경의 시작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황야는 ‘씨 뿌리지 않은 땅’(unsown land)으로 정의되며,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경작되지 않은 것’(not cultivated), 라틴어에서는 ‘불모의 황무지’(barren waste)를 의미한다.²⁾ 영어에서 이 표현은 야생 짐승을 가리키는 고대 영어 *wildeoren*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오늘날의 animal에 해당하는 *deor* 앞에 제어할 수 없는 피조물을 뜻하는 접두사 *wild*가 붙은 형태로, 8세기 초의 서사시인 「비오울프(*Beowulf*)」에서 이 단어는 숲, 바위산, 절벽 등지의 음침한 곳에 사는 야만적이고 공상적인 짐승을 일컫는데 쓰였다.

이처럼 초기의 어원만 관련시켜 보더라도 황야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살 만한 장소와 쓸 만한 공간의 창조는 곧 문명의 징표이다. 황야는 이러한 문명의 경계 바깥에 존재하는 공포와 황폐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서구 문화를 대별하는 두 축으로 흔히 사용하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여기에 대입한다면, 이는 황야에 대한 고전주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주의적 입장에서 황야는 인간의 문화의 반대 극단에 놓인 공포와 경외의 자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인간 문화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황야를 정복함으로써 인간은 문명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황야가 자연과 문화에 관한 중요한 은유를 제공해 왔음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한 은유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거주해왔던 곳 중 하나가 바로 유대-기독교의 전통이다. 쇼트의 견해를 따르자면, 구약성경에서 황야의 역할은 두 개의 극 사이를 동요한다(Short, 1991: 5-6). 우선 황야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장소로서 영적 통찰력의 원천이다. 하지만 또 다른 극단에서 황야는 인간이 그것을 변형하고 개선함으로써 원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은유를 포함하고 있다. 즉 황야는 성스러운 공간인 동시에 신의 인도 하에 인간의 개입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성경의 이러한 긴장감 있는 이원론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았지만,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의 정당화였을 것이다. 창세기의 다음 구

절은 자연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신념 체계의 원천으로 흔히 인용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1장 28절).

이러한 신념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시편 8장 6절)라는 유명한 구절과 함께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정원은 황야의 정복과 관련되는 중요한 은유이다.⁴⁾ 인간의 노력에 의해 황야를 변경시켜 정원을 창조하는 것은 자연을 극복하고 문명을 일구는 실제적 행위일 뿐 아니라 속죄의 이미지를 갖는 성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내가 광야[황야](wilderness)에는 백향목과 식담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이사야 41장 19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황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와 동산[정원]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이사야 51장 3절).

위의 인용구에서 드러나는 황야의 정복과 정원의 창조라는 은유는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 매우 적극적으로 실천된다(배정환, 1999).

린 화이트 2세는 황야를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기독교적 전통이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를 초래한 근원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신학은]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확립시켰고, 인간이 자신의 적합한 목적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는 주장을 폈으며,……자연 대상의 느낌에 무관심한 채 자연을 착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White Jr., 1967: 1205).

이 유명한 논문에서 제시된 화이트의 주장은 이후 환경

운동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고 일면 타당한 논리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식의 성경 해석은 기독교 이데올로기와 환경 문제를 너무 단선적으로 연관시킨 것이라는 반론 또한 대두되고 있다. 앞에서 거론했던 「창세기」 1장 28절이나 「시편」 8편 6절에 나타나는 인간의 역할을 자연의 청지기로 파악하는 대안적 입장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⁵⁾

요컨대 성경의 중요한 은유인 황야는 앞에서 검토했던 어원과 관련된 의미와 마찬가지로 공포의 자연이자 정복 대상으로서의 자연인 셈이다. 이러한 황야를 인간이 미적으로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III. 숲과 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미적 경험

1. 숲: 야만의 장소에서 미적 대상으로

숲은 황야에 대한 공포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오늘날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숲을 공포의 장소로 여기지 않는다. 숲은 한가로운 주말을 신선하고 풍부한 공기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의 장이자 자연의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미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숲은 공포와 비문명의 상징이었다.⁶⁾

황야가 고대 영어에서 숲에 해당하는 말인 *weald* 또는 *waeld*에도 그 어원을 둔다는 점은 황야의 대표적인 형태가 숲이라는 사실을 쉽게 깨닫게 해 준다.⁷⁾ 특히 중세 유럽에서 숲은 마녀와 야수가 거처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유럽의 전래 동화나 민속 이야기에는 숲에 거주하는 악마가 주인공을 위협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농경 사회의 문명인들은 숲에 거주하는 사람을 야만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야만(*savage*)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 또한 '숲에 관한'(pertaining to the woods)이라는 뜻으로, 이는 *wood*에 해당하는 라틴어 *silva*에서 비롯된 말이다. 자연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케이스 토마스는 이러한 시각이 근대 초기에 이르러 다소 동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수

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사람들이 황야를 언급하는 경우, 불모의 황폐지를 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조밀하고 경작되지 않은 숲을 의미하기는 했다. 셰익스피어의 「아든의 숲(*Forest of Arden*)」에서처럼, 그것은 "침울한 가지의 그늘 밑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막"이었다. 17세기 중엽의 시에 나타나는 용례는 숲에 적절한 형용어구를 제시해 준다: '무시무시한,' '어두운,' '야생의,' '황량한,' '미지의,' '우울한,' '인적이 드문,' '맹수가 출몰하는' 등등(Thomas, 1996: 194).

숲을 개간하여 문명화하는 일은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서양의 옛날 이야기에 는 나무꾼이 영웅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숲을 정복하는 과정이 누적되자 인간은 점차 넓은 개활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환경미학자 아놀드 벌리언트는 이를 통한 경제적 여유가 토지의 미적 차원에 대한 주목을 가능하게 했다는 독특한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18세기에 극에 달한 이러한 분위기는 "황야를 야만과 위협으로 간주하던 태도를 크게 바꿔게 하여 숲을 미의 영역으로 파악하게"(Berleant, 1997: 26) 하였다.

픽취레스크 미학과 풍경화식 정원이 이 시기에 만개했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풍경화식 정원의 유행은 숲에 대한 태도에 초래된 변화와 함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며, 자연을 대상화시킨 근대 과학과 모더니티의 힘이 그러한 함수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인식 전환과 그에 따라 자연이 미적 대상으로 이행되는 과정은 산에 대한 인식의 역사를 조회해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 산: '어둠의 산'에서 '영광의 산'으로

제사나 제의와 같은 종교적 이유나 자원을 구하려는 실용적 목적 없이, 즉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산의 경치를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감탄하거나 실제로 산에 오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주 평범한 일에 속한다. 하지만 산이 미적 경험의 대상이 된 것은 최근의 일

이다.

산에 관한 미적 인식의 역사를 상세하게 분석한 탁월한 연구로 평가받고 있는 메이조리 호프 니콜슨의 역저(Nicolson, 1997) 「어둠의 산과 영광의 산(*Mountain Gloom and Mountain Glory*)」의 제목은, 존 러스킨(John Ruskin)이 1886년에 고대의 산악관과 18세기 이후의 산악관을 구분할 때 쓴 용어에서 따온 것이다. 우리는 우선 이를 통해 모더니티와 계몽주의가 낳은 자연의 대상화가 산을 어둠의 장소에서 영광의 장소로 변화하게 했다는 추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니콜슨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산을 인간의 “수치심과 사악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는 “자연의 얼굴 위에 생긴 사마귀, 혹, 물집” 따위로 간주했다. “수백 년 동안 산에 올랐던 대부분의 인간들은 역지로 강요된 필요성을 원망하면서 벌벌 떨며 등산했으며, 약간의 미적 만족을 위한 경우조차도 드물었다”(Nicolson, 1997: 2). 숲과 마찬가지로 산은 악마와 귀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여겨졌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산을 기독교 교의에 반하는 마법의 장소로 보았다. 실제로 알프스나 피레네 같은 산악 지대에서는 극심한 마녀 사냥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초기 르네상스의 화가들과 시인들 역시 산을 혐오하거나 무시하는 고전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물론 그들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 여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프스의 산과 협곡과 낭떠러지를 고통의 장소로 기록하고 있다. 그들에게 산은 지상의 지옥이었던 셈이다.

흔히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의 시는 자연에 대한 낭만주의적 사랑의 초기 르네상스적 표현이라고 평가받는다. 1335년 4월, 페트라르카는 벤투(Ventoux) 산에 올랐는데, 이는 미적인 이유로 행해진 등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실은 그는 이 등정의 감상을 그저 이렇게 남기고 있다. “내려 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우뚝 솟은 산의 정상은 인간의 숭고한 위엄과 비교해 볼 때 1큐빗⁸⁾도 더 높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Nicolson, 1997: 50, 재인용). 황야에 대한 고전주의적 태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1506년, 세니 빠(Cenis Pass)산을 지나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네덜란드의 신학자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의 침묵을 표현하는 데는 ‘무관심’보다 더 적

절한 말이 없을 것이다.

비록 여행이 가장 장엄하고 가장 엄청난 자연의 깊이를 통해 이루어졌다 해도 그 위인 [에라스무스]의 서한 속에는 그가 자연의 경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단어조차 없다.……전체 여행 기간을 통해 끊임없이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자놀이에서 몇몇 백발을 발견함으로써 알게 된 자신의 늙음 밖에는 글 쓸 거리를 찾지 못하였다(Rader and Jessup, 1991: 219, 재인용).

이러한 무관심보다도 더 빈번했던 것은 강한 부정적 반응이었다. 1657년, 영국 시인 앤드류 마벨(Andrew Marvell)은 산을 가리켜 “땅을 불구로 만들고 하늘을 위협하는, 잘못 설계된 이상 발생물”이라고 묘사한다. 마벨의 묘사는, 신은 지구의 표면을 평탄하게 만들었지만 대홍수에 의해 신의 설계에 변형이 가해졌다는 당시의 신학 이론을 예증해 준다.

산을 인간의 죄악이 낳은 산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토마스 버넷(Thomas Burnett)이 1681년에 쓴 「신성한 지구의 이론(*Sacred Theory of The Earth*)」에서 더 극단적으로 표현된다. 버넷은 인간의 죄가 신이 설계한 지구의 얼굴에 사마귀와 마마 자국과 주름살을 남기고 있으며 산이 바로 그러한 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대홍수 이전의 지구의 얼굴은 산도, 바다도 없이 부드럽고 규칙적이었으며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이 부드러운 지구는……청춘의, 꽃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지구의 몸 전체는 신선하고 아름다웠고 그 어떤 주름살도, 흉터도, 갈라진 틈도 없었다. 바위 덩이도, 산도 없었다.……다만 전체가 평탄하고 동일했을 뿐이다(Porteous, 1996: 75, 재인용).

버넷의 이러한 언급에는 신학적 입장과 고전적 미학이 결합되어 있다. 지구의 본래 모습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규칙성, 통일성, 비례 등의 성질은 18세기 이전의 미학이 미의 척도로 삼았던 성질과 일치한다. 인간의 죄악에 의해 변형된 지구의 불규칙하고 변화무쌍한 성질이 당시의 미학 이론 내에서 아름답다고 평가되었을 리 만무하다. 황야로서의 산이 미적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있 기란 불가능했던 것이다.

산에 대한 고전적 태도는 심지어 18세기의 문학 작품 속에서도 계속 발견된다. 1773년, 고전주의 시인이자 사전 편찬자로 잘 알려진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탐험에 나섰는데, 후에 이 여행의 기록을 「스코틀랜드 동부 섬들의 기행(A Journey to the Western Isles of Scotland)」에 담았다. 그에게 있어서 산은 “넓디넓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불모지”(Short, 1991: 16. 재인용)에 불과했을 뿐이다.

18세기의 문화적 변동을 겪으면서 산에 대한 태도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이를 황야에 대한 낭만주의적 태도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초에 이르면, 낭만주의 시인들은 산과 숲을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야로 경험하고 인식한다. 바이런(Lord George Gordon Byron),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셸리(Percy Bysshe Shelley) 등에게 있어서 산은 신의 능력, 아름다운 것, 무한함과의 접촉의 상징이었다. 워즈워스의 시 「뒤집혀진 계울(The Tables Turned)」에 귀 기울여 보자.

자, 산 속의 흥방울새 소리를 들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음악은 정말이지,
그 노래 속엔 더 많은 지혜가 들어 있다.

또 들어 보라! 얼마나 쾌활히 티티새가 노래하는가를!
그도 역시 결코 시시한 설교자는 아니다:
만물의 빛 속으로 나오라,
그리고 자연을 네 스승으로 삼아라.

자연은 막대한 부를 갖고 있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축복해 준다—
활력이 넘치는 생동하는 지혜,
쾌활함이 살아 숨쉬는 진리들(10-20행)⁹⁾

이 시에서 산과 숲은 이제 악마가 거주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자연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축복하는 스승으로 표현되고 있다. 자연에 미적 가치는 물론 도덕적 가치까지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낭만주의적 시각에서 인간의 손이 거처 가지 않은 황야는 순수함의 상징이다. 황야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평가된다. 산과 숲이 깊은 정신적 의미를 갖는 지상의 낙원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고전주의적 입장은 황야의 정복과 통제를 진보로 파

악한다. 낭만주의적 입장은 이와는 반대로 황야를 극복하고 건설한 인간의 문화에 황금시대로부터의 퇴락이라는 은유를 대입한다. 이러한 입장에 서면 숲이나 산과 같은 황야에 거주하는 사람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된다. 예컨대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고상한 야만인”(noble savage) 개념은 숲에 거주하는 사람을 야만인으로 보던 고전적 입장과는 달리 보다 순수하고 보다 단순하며 긴밀한 조화 속에서 자연과 깊이 공감하며 사는 삶을 상징한다. 셔우드(Sherwood) 숲 속에서 무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로빈 훗(Robin Hood) 일당의 이야기는 낭만적 시각을 바탕으로 숲 속 거주자를 영웅으로까지 부상시킨 대중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갑작스러운 전이에 명확한 시간적 경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두려워하다(fear)와 숭배하다(revere)가 모두 경외하다(to stand in awe)라는 뜻의 같은 어원을 갖는다는 점만 보더라도 고전적 입장과 낭만적 입장에는 공통분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긴장을 유지하면서 늘 공존해 왔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러한 긴장 관계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던 황야에 대한 고전적 인식이 낭만적 인식에 자리를 내어준 데에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었을 것이며, 그것은 곧 근대 과학과 모더니티에 의한 ‘자연의 대상화’일 것이다.

야만과 공포를 황야의 대명사로 여기던 고전주의적 인식이 황야를 미적 경험의 대상으로 뒤바꾼 낭만주의에 길을 내주게 된 변화는 19세기의 북미 대륙에서 정점에 이른다. 이제 황야에 대한 낭만적 태도가 북미 대륙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했고 그것이 오늘날의 자연 경험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는지 검토해 볼 순서이다.

IV. 19세기 미국의 낭만주의적 황야관

황야를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북미 대륙에서 한층 두드러진다.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하기 시작하던 17세기, 그들은 황야를 정복하여 ‘전원 이상’에 충실한 정원으로 바꾸는 일을 선구자적 목표로 삼았다(배정한, 1999). 메이플라우어호에서 내린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는 “섬뜩하고 황량한 황야”를 발견하고 “문명화된 삶의 적인 황야를 정복하고 섬

떨하는 일을 신성한 의무라고 다짐”했다(Nash, 1982: 23-24. 재인용).¹⁰⁾

청교도들이 황야를 공포의 환경으로 두려워한 것은 황야가 담고 있는 무절제한 자유의 은유 때문이었다. 그러한 자유는 문명의 장막을 벗겨서 인간을 숲 속에 거주하는 야수처럼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폴 셰퍼드는 이러한 인식을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소설 「주홍 글씨(The Scarlet Letter, 1850)」에서 드러나는 성(sexuality)에 대한 청교도들의 경멸과 연관지어 해석한다(Shepard, 1967: 141, 181). 황야에 대한 두려움과 성에 대한 경멸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제 2의 에덴과 같은 새로운 지상 낙원을 꿈꾸며 대서양을 건너왔지만 삶의 경계 바로 밖에서 황야를 마주 해야 했다. 하지만 성과 마찬가지로 황야는 통제하기 어렵고 광적이며 규칙과 조절을 쉽게 따르지 않는다. 황야는 그들의 생존을 실제적으로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어둡고 사악한 악마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초반에 이르면 이러한 식의 자연 인식이 크게 변하기 시작한다. 변화의 촉매는 대서양을 통해 미국 동부의 도시들로 수입된 유럽의 낭만주의였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장 자크 루소의 “고상한 야만인” 개념과 에드먼드 버크(Burke, 1753)의 “숭고”(sublime) 미학 등이 유입되었다. 이미 동부의 도시들의 생활 환경은 영국의 대도시들 못지않게 부패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황야가 도시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인식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유대-기독교의 근본주의적 전통이 쇠퇴했다는 점 또한 자연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게 했다. 점차 힘을 얻게 된 낭만주의적 이신론(deism)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신의 전지전능한 힘이 야생의 장소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명된다고 믿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1803년에 오하이오의 험난한 계곡을 탐험한 한 동부인은 이런 기록을 남긴다. “이 광활한 숲의 그늘과 고요함 속에는 마음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다. 깊은 고독 속에서, 우리는 오직 자연과 함께 신과 대화한다”(Nash, 1982: 58. 재인용). 1818년, 탐험가 에스트윅 에반스(Estwick Evans)는 “고난의 즐거움과 위험의 고통함을 경험하기 위해” 일부러 거

울을 택해 여로에 올랐다. “자연에 대한 명상은 존재의 중심으로 향하는 인식의 가로가 [되었다]……‘바라보기’는 현신의 행위가 되었다”(Nash, 1982: 56. 재인용). 황야를 긍정적으로 대함은 물론 미적 환경으로 여기는 데까지 발전하게 된 이러한 경향은 동부에서 서부로 밀물처럼 번져갔다.

자연에 대한 태도를 더욱 급격히 뒤바꾼 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미국적 자존심이었다. 그들은 유럽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대적할 수 있는 미국의 유일한 자산이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들만의 거대하고 웅장한 황야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신세계의 자연이 유럽의 문화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는 자부심은 황야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자연은 “편집되지 않은 신의 원고”라는 것이다. 황야는 공포의 자연이 아니라 신성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미적 경험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자연의 미와 국가 특성을 이념적으로 결합시킨 결과 미국의 황야는 신세계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재인식되었고, 이는 국립공원운동(national parks movement)의 정신적 근원으로 작용한다. 1832년, 저명한 풍경화가 조지 캐틀린(George Catlin)은 “황야의 모든 국립공원과 자연 미의 생생함을……후대의 시민과 세계[를 위해]……보전”(Nash, 1982: 101. 재인용)할 것을 호소한다. 이러한 정신은 자연주의자 존 뮈어(John Muir)의 사상,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의 환경운동, 황야법(Wilderness Act, 1964)의 제정 등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념으로 작용한다.

황야에 대한 19세기 미국의 찬양과 일종의 강박 관념은 역설적이게도 토지의 잔인한 파괴와 함께 진행되었다. 자연에 대한 찬양은 풍경화를 통해 이상화되었지만, 이러한 이상화의 이면에는 자연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문명의 침입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풍경화를 조감해 보면 자연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사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바바라 노박은 대중적(popular) 풍경화와 빛의(luminist) 풍경화로 19세기 미국의 풍경화를 분류하면서, 양자에서 드러나는 자연관을 해석하고 있다(Novak, 1996).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대중적 풍경화인데, 프레드릭 처치(Frederic Church), 앨버트 비어스타트(Albert Bierstadt), 토머스 모란(Thomas Moran) 등의 화가와 에셔 듀란트(Ashur B. Durand) 및 토머스 콜

(Thomas Cole)로 대표되는 허드슨강 화파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의 작품은 그림 자체의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웅대한 미국의 자연을 담은 경우가 많았으며 황야에 대한 미국적 신화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듀란드는 「진보(Progress, 1853)」라는 제목을 단 대형 그림에서 황야와 문명의 긴장을 묘사하고 있다. “이 그림의 왼편은 픽취데스크의 유산이다—폭풍, 황폐화된 나무, 인디언 등이 그려진 ‘옛 자연’의 상징인 셈이다. 오른쪽의 ‘새로운 자연’은 기선, 건물, 기관차가 내뿜는 연기가 거슬리지 않게 진보를 예고하는 정원이다”(Novak, 1996: 173).

19세기 미국의 황야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그림화(pictorialization)되고 대상화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엘로스톤 국립공원과 같은 황야를 원시의 자연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러한 원시 자연에서 안전하게 그 경치를 경험하고 감상한다. 물론 일상 생활에서와는 달리 여려가지 모험과 도전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황야를 경험하는 우리는 대상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취한 관객일 뿐이다. “엘로스톤 호일은 뜨거운 샤워와 훌륭한 저녁을 갖추고 그런 구경꾼들을 기다리고 있다”(Crandell, 1993: 87)는 지나 크랜델의 익살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황야는 마치 낭만적인 전원처럼 주변의 맥락으로부터 고립된, 그림 같은 미적 경험의 대상일 뿐이다.

「월든(Walden)」을 통해 황야에 대한 미국인의 찬양을 극단적으로 대변했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Thoreau, 1853)의 숲 속의 생활은 문명으로부터 단절된 야생과 원시의 삶이 아니다. 소로우의 숲은 혼란한 도시와 공포의 황야 사이에 위치하는 안전한 전원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평가도 가능한 것이다. 이를 테면 레오 마르크스는 소로우의 자연을 이렇게 평가한다. “종종 소로우를……사회로부터 도피하는 완전한 은일의 주창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그는 진정한 원시주의자와는 거리가 멀다……「월든」이 펼쳐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 그 의미와 가치의 주된 체계는……전원 취미의 특징인 중간 경관(middle landscape)에 있다”(Marx, 1991: 71).¹¹⁾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황야와 전원 이상이 적지 않은 면적의 교집합을 공유하고 있다는 역설과 마주하게 된다.

V. 결어: 조경의 이중적 자연관과 그 모순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전적 황야 개념은 근대를 겪으며 낭만적 황야 개념으로 바뀌었다. 야수와 마녀가 거주하는 공포와 혐오의 장소가 미적 경험의 대상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러한 전이의 가장 큰 요인은 근대 과학의 발전과 모더니티의 성립에 의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근대 과학은 자연을 신화로부터 해방시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자연을 탄생시켰다.¹²⁾ 또한 모더니티의 주객 이원론은 자연을 주체에 의해 인식되는 객체로 상정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사이에 심적·물리적 거리를 낳았으며 이러한 거리는 객관적인 자연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모더니티 정신의 새로운 세계 인식과 근대 과학의 지평을 바탕으로 인간은 비로소 자연에서 미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공포의 자연, 곧 정복의 대상인 황야로부터 초연히 거리를 취한 채 그것을 하나의 경치로 관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해석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 낭만주의적 경향은 자연과학적 세계 인식에 대한 반동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그것이다. 물론 낭만주의적 자연관은 마치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처럼 “모래 한 알에서 세계를, 야생 들꽃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당신의 손바닥에서 무한함을, 한 순간에서 영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념의 표명이었다. 하지만, 낭만주의가 근대 과학과 기술에 힘입어 무한한 진보를 꿈꾸는 이성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학의 발전과 이성 중심의 모더니티라는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상호 연관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해석이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즉 새로운 자연 인식과 이를 통해 가능하게 된 자연의 미적 경험은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 인간 문화의 잉여물인 것이다. “자연을 자연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유럽 정신사의 특기할 만한 업적이다. 자연을 자연으로 보는 능력은 시각이 마술이나 미신에 점거당한 자연으로부터 해방되면서 형성되었다……이러한 자연에 대한 자연과학적 이해와 병행

해 낭만파는, 자연의 미적 이해를 대변한다(Warnke, 1992: 179)”라는 미술사가 바른케의 통찰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낭만주의의 우산 속에 위치하는 오늘날의 황야 개념은 결국 전원 이상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는 원생의 자연을 꿈꾼다. 그러나 우리가 곁에 두고자 동경하는 자연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원, 곧 그림 같은 자연이다. 황야는 일면 이 그림 같은 자연의 반대 극에 놓인 원시의 처녀지인 것으로 착각되곤 하지만 그것 역시 황금새장 속의 박제나 다름없는, 우리가 경험하고 조절할 수 있는 대상화된 자연인 것이다. 앞에서 소로우의 「월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듯, 황야는 전원 이상의 또 다른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원생의 자연과 길들여진 전원은 조경이라는 근대적 문화 행위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결합된다. 우리는 이 접속의 산물을 “황야와 잔디밭이 동거하는 미국 경관의 풍경”(Pollan, 1998)에서, 또 그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세계 현대 조경의 지형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른바 생태적 조경이 지향하는 자연의 모델은 변경과 왜곡이 없는 자연 즉 황야인 것 같지만, 생태적 조경이라는 매개 수단을 거쳐 우리 곁에 놓이는 자연이라는 것은 결국 낭만적인 전원이 아닌가? 조경이라는 것은 결국 이원적 자연관 속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모순의 행위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가 황야의 개념적 변화를 돌이켜 보며 이 시대 조경의 이념적 지뢰 곧 자연의 모순을 다시 짚어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해 준다. 막연한 자연과 이름뿐인 생태를 설계의 일등 상품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한국 조경에 반성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

- 주 1. 사실 자연은 가시적인 형태를 지닌 실체가 아니다. 자연의 모습이 변하는 것은 자연을 인식하는 인간의 사고나 미적·윤리적 가치의 변화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기본적으로 문화적”이라는 스펀드 에릭 라르센의 역설적 통찰은 타당하다. “오늘날 자연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때,……자연 그 자체에는 위기가 없다.……하지만 인간의 문화가 자연 안에서 생존해야 하며……[그러할 때] 자연은 죽음의 목전에 처해 있다”(Larsen, 1992: 116).
- 주 2. 이 논문에서 wilderness를 ‘황야’(荒野)라고 번역해 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어원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흔히 ‘야생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는 어원과 (앞으로 논의할) wilderness의 철학적 함의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 한편 한글 성경에서 채택하고 있는

번역어 ‘광야’(曠野)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을 경우 넓은 땅이라는 의미를 갖는 광야(廣野)와 혼동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 주 3. 이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익명의 한 심사위원은 내용의 대부분이 서구적 인식에만 근거함을 지적하며 “우리의 전통적 인식과 동양적인 인식과의 차이를 비교”해 볼 것을 권유했다. 황야를 정복하고 통제함으로써 문명을 건설한다는 서구의 전통적 자연관과 인간과 자연 사이에 서구와는 달리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했던 동아시아의 전통적 자연관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역으로 바로 그러한 차이 때문에, 양자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매우 거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 논문이 주목하는 황야 곧 wilderness는 서구적 자연 인식을 대변하는 개념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동아시아적 개념을 대응시키기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의 자연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서구와 동아시아를 비교하는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주 4. 우리 말 성경은 정원에 해당하는 영어 garden을 ‘동산’으로 번역하고 있다. ‘에덴의 동산’은 곧 ‘에덴의 정원’에 다름 아니다.
- 주 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청지기 정신을 강조하는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맥도나흐(McDonagh, 1993: 109-214)의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 주 6. 숲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그 배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리슨(Harrison, 1992)의 책이 유용하다.
- 주 7. 이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익명의 한 심사위원은 국어사전에서 풀이하는 ‘황야’는 거친 들판이나 사막처럼 버려진 땅 쪽에 가까움을 제시해 주며 황야의 대표적 사례로 숲과 산보다는 오히려 들판이나 사막 등을 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지적을 해주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숲과 산은 오늘날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중한 숲이나 아름다운 산 등과 같은 이미지의 자연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자 문명에 의해 거부당한 버려진 대상이라는 점에서 거친 들판이나 사막과 넓은 면적의 교집합을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의 IV장에서 고찰하는 19세기 미국의 황야는 숲과 산에 국한되지 않고 북미 대륙의 광활한 야생의 들판과 사막 등을 포괄하고 있기도 하다.
- 주 8. ‘큐빗(cubit)’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의 길이를 뜻하는 고대의 척도로, 40~55cm 정도에 해당한다.
- 주 9. 워즈워스 시에 나타나는 낭만적 경관에 대해서는 브레넌(Brennan, 1987)의 책에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특히 이 책은 워즈워스의 시어와 당시의 낭만주의 풍경화가 터너(J. M. W. Turner)의 그림 사이의 유비 관계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 주 10. 로테릭 내쉬(Nash, 1982)의 책은 황야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처음 세 장은 황야 개념의 역사와 그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
- 주 11. 마르크스가 말하는 “중간 경관”은 “문명과 자연의……사

이"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준원시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한다(Marx, 1964: 23).

- 주 12. 근대의 이 새로운 자연관은 흔히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지칭된다. 이에 관해서는 國谷 純一郎(1977: 180-99)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캐롤린 머천트(Merchant, 1990)를 위시한 환경론자들은 기계론적 자연관이 자연의 죽음과 황야의 파멸을 낳은 주범이라는 견해를 펴고 있다.

인용문헌

1. 구약성경 창세기, 시편, 이사야.
2. 배정환(1999) 조경설계에서 전원 이상의 전통과 그 이면. 농촌계획 5(2): 46-55.
3. 배정환(2004)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성남: 도서출판 조경.
4. 國谷 純一郎(1977) 自然思想史. 심귀득, 안은수(역), 환경과 자연 인식의 흐름. 서울: 고려원, 1992.
5. Berleant, A.(1997) Living in the Landscape: Toward an Aesthetics of Environment.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6. Brennan, M.(1987) Wordsworth, Turner, and Romantic Landscape: A Study on the Tradition of the Picturesque and the Sublime. Columbia: Camden House.
7. Burke, E.(1753)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 A. Phillips, ed.(199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8. Crandell, G.(1993) Nature Pictorialized: "The View" in Landscape Hist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9. Harrison, R. P.(1992) Forests: The Shadow of Civiliz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 Larsen, S. E.(1992) Is nature really natural? Landscape Research 17(3): 116-22.
11. Marx, L.(1964) The Machine in the Garden: Technology and the Pastoral Ideal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2. Marx, L.(1991) The American ideology of space. In S. Wrede and W. H. Adams, eds., Denatured Vision.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pp. 62-78.
13. McDonagh, S.(1993) To Care for the Earth: A Call to a New Theology. 황종렬(역), 땅의 신학: 새로운 신학에의 부름. 왜관: 분도출판사, 1993.
14. Merchant, C.(1990)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New York: Harper Collins.
15. Nash, R.(1982) Wilderness and the American Mind (rev.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6. Nicolson, M. H.(1997) Mountain Gloom and Mountain Glory: The Development of the Aesthetics of the Infinite (2nd ed.).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7. Novak, B.(1996) Nature and Culture: American Landscape and Painting 1825-1875 (rev.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8. Pollan, M.(1998) Beyond wilderness and lawn. Harvard Design Magazine 4: 1-7.
19. Porteous, J. D.(1996) Environmental Aesthetics: Ideas, Politics and Planning. London: Routledge.
20. Rader, M, and B. Jessup(1991) Art and Human Value. 김광명(역), 예술과 인간가치. 서울: 이론과 실천, 1992.
21. Shepard, P.(1967) Man in the Landscape: A Historic View of the Esthetics of Nature. New York: Alfred A. Knopf.
22. Short, J. R.(1991) Imagined Country: Environment, Culture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23. Spirn, A. W.(1997) The authority of nature: conflict and confusion in landscape architecture. In J. Wolschke-Bulmahn, ed., Nature and Ideology: Natural Garden in the Twentieth Century.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24. Thomas, K.(1996) Man and the Natural World: Changing Attitudes in England 1500-18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5. Thoreau, H. D.(1853) Walden. 강승영(역), 월든. 서울: 도서출판 이레, 1995.
26. Warnke, M.(1992) Politische Landschaft: Zur Kunstgeschichte Der Natur. 노성두(역), 정치적 풍경. 서울: 일빛, 1997.
27. White, Jr, L.(1967)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1205.

원고접수: 2006년 2월 14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6년 3월 9일

3인 익명 심사필